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의  
이미지 중첩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성 수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의

이미지 중첩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성 수

# 인 준 서

김성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인간은 삶을 살아가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며 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격이 본래의 인격과 일치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인격은 이중성을 보이며 공존한다. 즉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페르소나를 사용함과 동시에 본인의 인격을 표출하고자 하는 잠재된 이중성을 띤다.

본인의 작품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이중성을 가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가면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숨길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감정적이거나 허위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중성을 페르소나를 통해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페르소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페르소나에서 비롯된 본인의 감정을 배경으로 표현하고 재해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2016년 석사학위 청구전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과정에 있어 내용의 형성 배경과 조형적 표현을 연구, 분석하여 총 3장으로 구성하였다.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대해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II 장 본론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형성 배경으로 인한 인간의 감정과 페르소나의 이중성의 고찰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가면으로 표현되는 이면을 연구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본인의 주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에

보이는 표현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3. 작품 분석에서는 작품 도판과 작품의 표현 기법, 의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Ⅲ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타인의 시선	3
2) 페르소나 (Persona)	5
2. 작품의 표현방법	7
1) 이중적 표현	7
2) 빛과 그림자	9
3. 작품 분석	11
III. 결론	31

##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everybody lies—woman in profile 80x108x20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11
【작품 2】 everybody lies—hide one`s eyes 80x115x20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13
【작품 3】 everybody lies—sheila 90x124x20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15
【작품 4】 everybody lies—lolita 63x73x13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17
【작품 5】 everybody lies—a troubled woman 93x114x15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19
【작품 6】 everybody lies—a charming girl 62x121x15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21
【작품 7】 everybody lies—the lady 72x100x15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23
【작품 8】 everybody lies—gentleman 72x101x13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25
【작품 9】 everybody lies—a middle-aged man 67x104x13cm—Stainless steel. Epoxy —2016 .....	27
【작품 10】 everybody lies—model 100x100x12cm—Stainless steel. Epoxy —2015 .....	29

# I. 서론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사람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sup>1)</sup>란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사회 집단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사회의 관계집단은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공간에 분포 되어있다. 즉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시작은 되었으나 그 집단의 유형에 맞춰 본인의 분위기를 동조 해야만 한다. 동조성은 실존하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불안’에 근거한 심리다. 동조하지 않으면 나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분리되면 소외되어 사랑을 얻지 못한다. 동조 심리로부터 군거성(群居性)의 심리가 만들어진다.<sup>2)</sup> 어려서부터 우리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늘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라는 사회적 기대를 의무와 당위로 강요받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싫든 좋든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며 집단을 만들게 되고, 그 집단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취향에 맞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며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게 된다.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개인의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이중성의 본질을 시각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정은 시각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시화 하는데 가면의 이미지와 그림자를 차용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되어 진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이미지의 가면

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정치학자(Politics)』의 명언, 기원전 328

2) 고영순, 『페르소나의 진실-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 학지사, 2007, p.159

과 내적인 진실성이 작품으로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의 특징과 각각의 작품에 담겨진 제작의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제작방법을 기술하여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 배경

본인의 작품은 본인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만능인이 되고 싶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내가 모든 것들을 잘하면 친구들, 어른들이 좋아해주고 칭찬 받는걸 좋아 하였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자라온 아이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누나 3명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아버지 없는 아이’ 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 반감에 더욱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타인이 나를 좋아해주고 필요로 느끼면 그 곳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 1) 타인의 시선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에 의하면 “나에 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타자를 통과해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 불가결 하다”<sup>3)</sup>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본인의 진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의 이미지를 정의 하는 것은 본인의 정의가 아닌 타인의 시선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세상인 온라인상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상행동, 소속집단 강압에 따른 과잉행동과 매뉴얼화된 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보인다. 타인의 시선의 유무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

3) 장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옮김, 이학사, 2008, p.66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반듯하고 올바른 사람이더라도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처럼 개개인은 타인의 시선의 유무에 따른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진실 된 모습을 숨기며 타인이 좋아할 모습으로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사용한다.

본인도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중에 한명이다. 타인이 좋아하는 행동, 타인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며 그곳에 안주해왔지만 그럴수록 타인이 생각하는 ‘나’ 라는 이미지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허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 쓸수록 새로운 만남은 두려움과 거부감만 커지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 하면 할수록 다양한 허상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타인에게 투영되는 자신의 이미지로 판단된다. 타인에게 부여한 좋은 이미지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집단 내에 동조되기 쉽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요구하는 역할의 페르소나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타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본연의 인격은 속에 숨겨두고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 2) 페르소나 (Persona)

‘페르소나(Personal)’란 인격, 위격(位格) 등의 뜻으로 쓰이는 라틴어이다. 본디 연극배우가 쓰는 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우인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철학용어로는 이성적인 본성(本性)을 가진 개별적 존재자를 가리키며, 인간 · 천사 · 신 등이 페르소나로 불린다. 즉,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책임을 지며 행동하는 주체를 말한다.<sup>4)</sup>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 성격을 보인다. 사회적 페르소나의 겉모습과 본연의 인격은 다른 존재이다. 예를 들면 자신보다 상대적 우월한 타인은 존경의 대상이면서 시기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즉 사회적 페르소나는 질투보단 부러움의 대상으로 표출하여 타인의 감정을 배려한다. 하지만 본연의 인격은 질투나 시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표출하지는 못한다. 이는 집단에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식적인 페르소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잘하기 위해 썼던 가면(Persona)이 어느 날 내 인격(personality)이 되어 버린 것이다. 즉 인간관계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 썼던 가면이 마치 진짜 얼굴처럼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sup>5)</sup>

라캉(Jacques Lacan)<sup>6)</sup>의 욕망이론에 의하면 인간 주체는 늘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자의 원형은 어머니, 곧 타자이다.

4) 네이버 지식백과, 페르소나(Personal)

5) 고 영순, 『페르소나의 진실0-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 학지사, 2007, p.250

6)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하였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처음에는 철학을 배웠으나 후에 의학정신 병리학을 배웠다. 1932년 프로이트의 지도를 받았으며 <개성에 비추어본 망상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을 정신과 의사 및 정신분석학자로 지냈다.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탈퇴하여 1953년 프랑스정신분석학회를 창설하였다. 1966년 논집 <에크리 Ecrits>의 간행으로 갑자기 유명해졌으며, M.푸코 등과 함께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 라캉은 말년까지 무려 4백만 명이 넘는 환자를 상담하고,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하여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아 주지만 자신이 어머니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아이는 ‘어머니는 무얼 소망하고 욕망하는가, 내가 그걸 채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 생성이 된다. 타자가 욕망하는 것, 즉 타자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결여된 것 역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무의식적 욕망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듯 남을 위해 자기를 비난하며 억지웃음을 지어야 하는 가면은 그저 버려지지 않기 위한 내적 전쟁을 치르면서 얻게 된 전리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sup>7)</sup>

페르소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희생시킨 바탕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아를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할 때 그의 진정한 자아는 희생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이 세상과 접촉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며,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sup>8)</sup>

---

7) 김미숙, 『나는 오늘도 가면을 쓰고 산다.』, 대림북스, 2016, p.65

8) 김성민, 『현대인과 종교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읽기』, 세창미디어, 2015, p.116

## 2. 작품 표현 방법

인간의 페르소나와 본연 인격의 이중성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인의 작품은 얼굴위주의 상반신을 용접을 통해 드로잉한 후 작품과 그림자의 표정변화를 보이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이중적 감정을 표현 하였다.

### 1) 이중적 표현

작품은 스테인리스 환봉이 공간을 지나가며 단순하지만 깨끗한 이미지의 드로잉을 시각화한다. 단순한 드로잉 사이를 원색의 투명한 에폭시로 단조로움을 채워 팝아트(pop art)적인 요소를 가미한다. 작품은 대부분 여성과 남성의 얼굴위주의 상반신을 드로잉 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 정형화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은 남성의 이미지 보다는 여성의 이미지가 더 많다. 이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위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항상 많았기 때문이다. 페르소나와 본연의 감정중 이중적 대립변화의 대상은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진 것이다. 드로잉 대부분은 옅은 미소를 띠며 밝은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화려한 이미지와 밝은 느낌과는 달리 그림자는 우울하거나 화난모습들로 원래 스테인리스 라인이 그려낸 밝은 표정과 상이한 표정을 보여준다. 즉 작품은 우리가 평소에 보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면'의 페르소나를 상징하며 뒤의 그림자는 개인의 '내면인격'을 투영한 것이다.

벽에 띄워진 스테인리스 작품과 벽에 그려진 그림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 공간은 작품과 그림자의 공유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분리하는 공간이 된다. 겉모습과 속마음의 보이지 않는 경계 같은 존재이다. 그 공간이 없다면 작품과 그림자의 이미지는 분리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공간이다.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 불편함을 인

식하더라도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추어야 되는 것과 같다.

또한 본인의 작품은 작품의 드로잉선과 그림자의 이미지가 겹쳐 보이며 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작품의 밝은 이미지와 그림자의 어두운 이미지는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서로를 엇갈리며 지나간다. 주체인 작품의 본연의 드로잉을 그림자의 드로잉이 겹쳐 본연의 드로잉을 깨트리며 혼동되어 보인다. 본연의 인격과 페르소나 인격의 혼동으로 동조성을 잃어버린 불안한 심리가 투영된다.

본인은 표현 방법을 통해 타인을 평가하는 표면적 기준의 이면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서로 다른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타인에게 요구하는 강압적 역할이미지와 암묵적인 동질성의 강요로부터 오는 본인의 정체성 혼란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 2) 빛과 그림자

그림자는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이다. 물체가 존재하고 빛이 있다면 항상 같은 모습을 본 단 그림자는 같이 존재한다. 회화나 사진 같은 평면보다는 조각과 같은 입체에서 그림자의 역할은 뚜렷해진다. 본인의 작품은 입체 보다는 평면에 가까운 부조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 감성적으로 내재된 감정의 표현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였다. 물체는 물리적인 힘이 가하지 않는 이상 형체가 변화하지는 않지만 빛과 그림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조금의 변화에도 많은 그림자의 변화가 따른다. 예를 들면 해시계는 해(빛)의 변화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 위치에 따른 시간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이처럼 시계의 중심은 변하지 않지만 해(빛)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를 연구해낸 것이 해시계이다. 본인 작품은 이와 같이 빛의 변화에 따른 형상의 왜곡에 집중하였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sup>9)</sup>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의식 속에 숨겨온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의미<sup>10)</sup>한다. 특히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제 2의 자아로 많이 표현이 된다. 하지만 본인은 그림자를 제 2의 자아가 아닌 개인의 본연의 인격으로 보았다. 그림자에 영향을 많이 주는 빛을 본인은 타자의 시선으로 대립시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시선만으로도 생기는 개개인의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작품의 표면적 이미지는 사회적인 페르소나의 이미지로 빛은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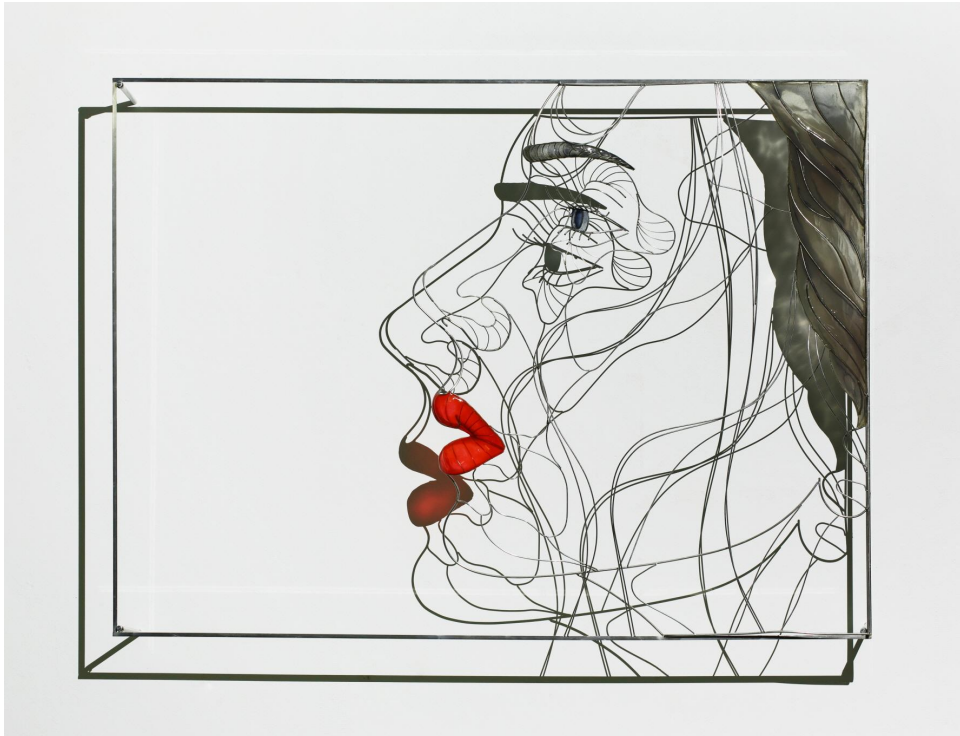
---

9)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스위스 바젤에서 출생한 융은 1900년 취리히 대학 부속 부르크홀플리 정신병원 E.블로일러교수 보조하는 보조의사이자 연구원이 되었고 정신의학을 활발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단어 연상법으로 S.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제기한 억압된 것, 즉 억압이론을 입증하고, 그것을 '콤플렉스' 라고 이름을 붙였다. 콤플렉스라는 개념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융과 부르크홀출리 병원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14년에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하고 자신의 심리학(분석심리학)을 수립하는데 노력하였으나 1961년 6월 6일 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10)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인의 시선으로 그림자는 개인이 숨겨놓은 진실 된 속마음의 인격으로 표현하게 된다. 빛의 위치는 작품마다 다르다. 다양한 타인들의 시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빛이 없다면 사물을 시각화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처럼 빛은 타인의 시선이 되기도 하지만 각자 개인의 눈이 되어 작품을 보는 빛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작품과 조명은 고정되어있지만 작품을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의 그림자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 3. 작품 분석



【작품1】 everybody lies-woman in profile

【작품1】 everybody lies—woman in profile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108 x 80 x 20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담담한 표정의 약간 야릇하게 입술을 벌리고 있는 여성은 무언가에 지루함을 느끼는 듯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다. 무료한 일상생활을 무의식적으로 대하듯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인다. 그림의 첫 인상은 차가운 여성의 이미지 이다. 하지만 작품의 그림자는 우울함을 간직한 한 여성이 나타난다. 눈은 마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 슬퍼 보인다. 입모양 역시 꼬리가 쳐지며 한없이 우울함을 표출한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차가운 여자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가늠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적인 표정의 여성이지만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쓸쓸함과 외로움은 그 누구보다 깊어 보인다.



【작품2】 everybody lies—hide one`s eyes

【작품 2】 everybody lies—hide one`s eyes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80 x 115 x 20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눈을 가린 여성이 나비와 함께 물속에 누어있다. 자신의 한일을 후회하듯 탄식하는 듯 한숨 섞인 표정이다. 마치 주위에 죽어있는 나비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듯 흠뻑 젖어 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낸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듯 표정에는 자신감이 보인다.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이지만 여성의 내면에 내제되어있는 가식적인 이면을 표현하였다.



【작품3】 everybody lies—sheila

【작품3】 everybody lies-sheila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90 x 124 x 20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한껏 멋을 부린 아가씨의 옆모습이다. 꽃으로 장식된 모자와 화려한 노란색의 재킷으로 시선을 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듯 먼 곳을 응시한다. 열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의 초점은 없이 창백한 표정이다.

하지만 작품 뒤 그림자는 상대방을 깔보는 느낌이다. 현재 상황을 즐기며 '너는 나보다 밀이야' 라고 말하는 표정의 압도감이 느껴진다.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표정 뒤에 자신의 우월주의를 느끼며 이 상황을 느끼는 듯 본연의 인격은 숨긴 뒤 자신의 가면 뒤에 숨어본다.



【작품 4】 everybody lies-lolita

【작품4】 everybody lies-lolita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63 x 73 x 13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조숙한 소녀가 유혹하듯 매혹적으로 정면을 응시한다. 고풍적인 눈빛과 약간 벌린 입, 열은 입술, 붉은 머리카락은 성적으로 유혹 하는 듯 보인다.

어려보이는 여자의 그림자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진실을 드러낸다.

유혹적인 표정 사이사이 소녀의 비웃음이 보인다. 표면의 아름다움과 밝은 이미지와는 달리 내면의 어두운 이중적인 감정을 보인다.



【작품 5】 everybody lies—a troubled woman

【작품5】 everybody lies—a troubled woman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80 x 108 x 20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45° 로 몸을 기울인 여성이 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검은 매니큐어와 노란머리, 붉은 입술, 붉은 샤워 가운을 입고 있다. 유혹하듯 야릇한 상상을 불러 온다. 하지만 그림자는 강한 여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민에 빠진 눈치이다. 지금 대면한상황이 보다는 다른 걱정이 그녀를 괴롭힌다. 상황에 어울리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녀의 페르소나는 내면의 걱정을 억누른다.



【작품 6】 everybody lies—a charming girl

【작품 6】 everybody lies—a charming girl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62 x 121 x 15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긴 생머리의 여인이 광고의 한 장면처럼 뒤를 돌아보며 밝은 웃음을 짓는다. 청바지의 주머니에 엄지손가락을 꼽고 애교 섞인 발랄한 모습과는 달리 상의는 귀여움과 상반된 섹시한 의상을 입고 자신의 매력을 뽐내듯 당찬 모습이다. 하지만 발랄하고 당찬 여인의 비웃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시킨다. ‘나도 예쁜 거 알아’ 를 말하는 듯 입 꼬리를 한없이 올려본다.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고 타인에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이기에는 자꾸 웃음이 세어 나온다.



【작품 7】 everybody lies—the lady

【작품 7】 everybody lies—the lady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72 x 100 x 15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밝고 열린 미소를 띠고 있는 여성이 정면을 응시한다.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과 여유까지 보인다. 단정하고 밝은 미소는 거짓말은 못할 것 같이 투명하게만 보인다. 한 없이 상냥할 것 만 같은 여인의 그림자는 자신의 이미지가 거짓말이라는 듯 비웃고 있다. 다른 여성들을 보며 비웃기라도 하듯 앞의 이미지와 그림자는 겹쳐 보이며 서로에게 연민의 눈빛을 보낸다.



【작품 8】 everybody lies-gentleman

【작품 8】 everybody lies-gentleman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72 x 101 x 13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깔끔한 정장에 까만 썬 글라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의 중년의 남성은 중후함을 보인다. 썬 글라스로 눈빛은 읽을 수 없으나 썬 글라스 뒤로 당찬 남성의 눈빛이 보인다. 자신감이 가득 차있고 신사다운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그림자는 신사다운 면모의 중후한 남성은 마치 미국 갱스터를 연상 시키듯 험상궂은 범죄자의 얼굴이 나온다. 단순히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닌 자신을 완벽히 가면 속에 숨겨두고 이중생활을 한다. 낮에는 온화한 중년의 모습으로 밤에는 비열함이 묻어나는 남성이 된다.



【작품 9】 everybody lies—a middle-aged man

【작품 9】 everybody lies—a middle-aged man

제작년도 : 2016

작품크기 : 80 x 108 x 20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드로잉을 기반으로 같은 크기의 부조로 흙 작업을 한다. 부조 작업 후 석고 캐스팅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부조에 맞춰 가며 입체감을 주며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기초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긴 턱수염과 흘날리는 머리카락의 중후한 중년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무심한 듯 기른 수염과 머리카락은 그 남성의 중후한 멋을 더욱 상승

시킨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남성을 모두 좋아 할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하는 당찬 표정이다.

남자의 그림자는 변화가 없다. 자신의 페르소나가 본인을 억누르듯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진실을 들어 내지 않는다. 더 깊이 더 깊숙이 자신의 약한

감정을 숨긴다.



【작품 10】 everybody lies-model

【작품 10】 everybody lies-model

제작년도 : 2015

작품크기 : 100 x 100 x 12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Epoxy

제작방법-

작품 크기와 1:1 비율의 드로잉을 한다. 스테인리스 환봉을 드로잉에 맞추어 구부린 후 아르곤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사포질을 한다. 유토로 베이스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용접한 작품을 놓고 색상 안료와 혼합한 에폭시를 채운다. 채운 에폭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낸다. 사포질 후 에폭시 투명으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긴 머리를 휘날리며 유혹하듯 입을 약간 벌린 여인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작업하게 되며 처음 만든 작품이다. 여성의 상징인 입술과 긴 생머리, 성적 매력을 강조한 붉은색 입술과 속옷, 하지만 어딘가 청순한 이미지이다. 다른 작업에 비해 용접된 짧은 선들을 많이 썼으며 표정의 변화보단 작품과 그림자의 이미지의 겹치는 현상에 집중하였다. 그림자와 작품의 선이 서로를 지나가면 어떤 선이 본선인지 어떤 선이 그림자인지 헷갈린다. 겹쳐 보이는 이미지는 깔끔하게 정돈된 선이 아닌 어지럽게 서로를 교차하며 본인을 잃어 버렸다.

### Ⅲ . 결 론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이미지 중첩 표현에 관한 연구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페르소나의 변화와 개인의 삶보다는 사회집단에 동조되지 못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사회적적인 가면 뒤에 숨기는 생활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중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페르소나의 이미지는 개인의 욕구를 빗대어 타인에게 요구하는 욕구의 표출이자 개인의 감정해소의 분출구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춘 적절한 페르소나의 차용은 본인과 타인을 이해하는 매개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페르소나 현상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생활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 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의 집단에서는 꼭 필요로 함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타인의 시선을 본인이 요구하는 이미지로 강요하는 행동으로 시작되어 페르소나는 거짓된 감정의 표현으로 인식 되었다. 본인이 적응하지 못한 페르소나는 당연히 기피대상이었지만 작업을 통해 관계와 연계되는 과정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중적인 내면의 감정을 이미지 중첩을 통해 표현하고, 분리된 이중적 감정이 아닌 공존하는 감정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페르소나를 부정이나 긍정 어느 한편의 시각에서 바라보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른 적절한 페르소나는 서로에게 유대감을 상승시키며 관계를 돈독히 한다. 문제는 모든 생활이 페르소나가 주가 되면 주체의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진다. 이러한 가면 놀이가 곧 현실이고, 이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또한 역시 현실이다.

본인은 타인의 페르소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 페르소나를 거짓으로 보고 본연의 감정에 집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타인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적인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게 되어 개선해야 할  
또 다른 연구 과제이다.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 방  
법과 기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며 작업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 영순, 『페르소나의 진실-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 학지사, 2007
- 김 성민, 『현대인과 종교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읽기』, 세창미디어, 2015
- 김 미숙, 『나는 오늘도 가면을 쓰고 산다』, 대림북스, 2016
- 변 광배,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04
- 박 영수, 『상상 속의 얼굴, 얼굴 속의 문화』, 미진사, 1966
-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동서문화사, 2009

### 《참고 논문》

- 권 경미 「페르소나로서의 자화상을 통한 내면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이 지숙 「가면에 드러나는 인간의 성취욕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한 신영 「페르소나(Persona)와 자아성찰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홈페이지 및 기타》

-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Google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ABSTRACT

## A Study on the image Overlapping Expression of Persona and Shadow.

–Focusing on this researcher’ works–

Kim, Seong soo

Public Ar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s are social beings who have to live whilst engag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demands the individuals of various roles, and in order to fulfill their roles, individuals have to bear the social personality, the persona. However, because the social personality can not always be in parallel to original personality, the two coexist with duality. Expressly, human beings instinctively have potential duality to display their own personality whilst expressing a social persona.

My work expresses the daily emotional duality with the images of a mask. Mask is an outstanding tool to effectively camouflage ones' emotions. Expression was carried by visualizing the emotional or fictitious relationship through the social persona. I have presented my work by theoretically analyzing the persona, and reinterpreting

my emotions originated from the persona as a background.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on the background, formative study, and analysis, based on my works published for the master's degree in 2016,

- I. In the introduction, I explained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for my work.
- II. Contents of the main chapter is as follows.
  1. As a background of formation, by reviewing the dual nature of human emotion and social persona, I have studied the ulterior of human emotion being expressed as masks.
  2. Described the method of expression visualized on my works based on the subjective thought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3. Work of artistic in the work of the representa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the intention was described in detail.
- III. In the conclusion, I have summarized the content of the paper, and sought to find ways to better my work by complementing the shortcomings based on this study.